

KOSDAQ | 다각화된금융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고유계정 투자에 적극적인 벤처캐피탈

체크포인트

-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년 6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투자회사(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 총 51개 VC투자조합(VCF) 및 6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운용해왔으며, 누적 기준 1조 9,603억 원(VCF 1조 4,300억 원 / PEF 5,303억 원) 결성
- 영업수익(매출액)은 ① 고유계정 관련 수익, ② 투자조합 관련 수익, ③ 기타수익으로 구성. 투자조합의 운용과 함께 고유계정 투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 안정적인 투자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견조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한 선순환적 실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
-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보통신, 인터넷, 생명공학, 환경 등 다양한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우수 벤처기업이며 Mars auto, Omega Therapeutics, 리벨리온, S2W, 루닛, 에이유, 매스프레소(QANDA), 사이러스테라퓨틱스, Ensoma, 아론티어, Aktis Oncology, Riid(뤼이드), 탱커 등. 이와 더불어 애드테크(광고), 3D 시뮬레이션, 반도체 소/부/장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벤처기업(M사, C사, K사)에 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

KOSDAQ
다각화된금융

연구위원 김경민, CFA clairekkm@kirs.or.kr

연구원 이나연 lny1008@kirs.or.kr

1999년에 설립된 이후 2000년에 사명 변경

1999년 6월 한국드림캐피탈로 설립. 2000년 12월 미래에셋벤처투자로 사명 변경. 초기 다수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시작. 2005년 6월 김응석 대표이사 취임 이후 경영 안정화. 정보통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주요 대학 창업보육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투자 영역 확대와 지속적 성장

2010년대 들어 IT, 사회적기업, 애그로(농림수산물) 프로젝트, 세컨더리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 영역 확대. 2010년 첫 PEF(미래에셋나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통한 대규모 투자 역량 확보. 청년창업, 핀테크, 4차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화 투자조합들의 지속적 결성. 2019년 3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 및 대외 신뢰도 제고.

투자 전략 고도화 및 규모의 확대

글로벌 유니콘, 바이오 등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확대. 대규모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투자 규모 확대. 미래에셋 넥스트 코리아 지능정보 벤처투자조합 900억 원, 미래에셋 세이저 투자조합 2호 2,112억 원,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1,100억 원 등.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대형 투자 진행으로 투자 영역 다변화. ESG, 반도체 등 신규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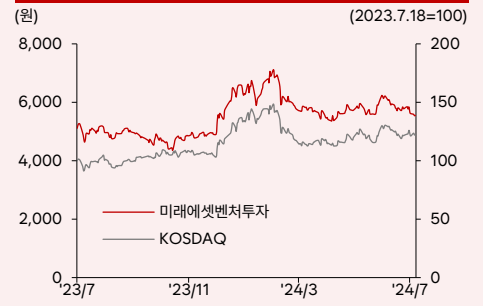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억 원)	1,281	2,748	2,180	2,170
YoY(%)	39.08%	114.57%	-20.69%	-0.42%
영업이익(억 원)	389	964	592	319
OP 마진(%)	30.39%	35.07%	27.16%	14.71%
지배주주순이익(억 원)	320	803	561	245
EPS(원)	626	1,657	1,157	457
YoY(%)	N/A	164.6%	-30.2%	-60.5%
PER(배)	8.3	4.9	3.7	12.7
PSR(배)	2.0	1.4	1.0	1.4
EV/EBITDA(배)	4.8	3.6	3.1	8.8
PBR(배)	1.4	1.6	0.7	0.9
ROE(%)	18.4%	38.0%	20.6%	7.7%
배당수익률(%)	2.8	1.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가	5,390원
52주 최고가	7,330원
52주 최저가	4,295원
KOSDAQ	814.25
자본금	547억 원
시가총액	2,863억 원
액면가	1,000원
상장주식수	53,124,634주
평균거래량(60일)	19.7만주
평균거래대금(60일)	7.1억 원
외국인지분율	0.77%
주요주주	미래에셋증권 외 68.8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5	-17.7	12.3
상대주가	-7.3	-16.5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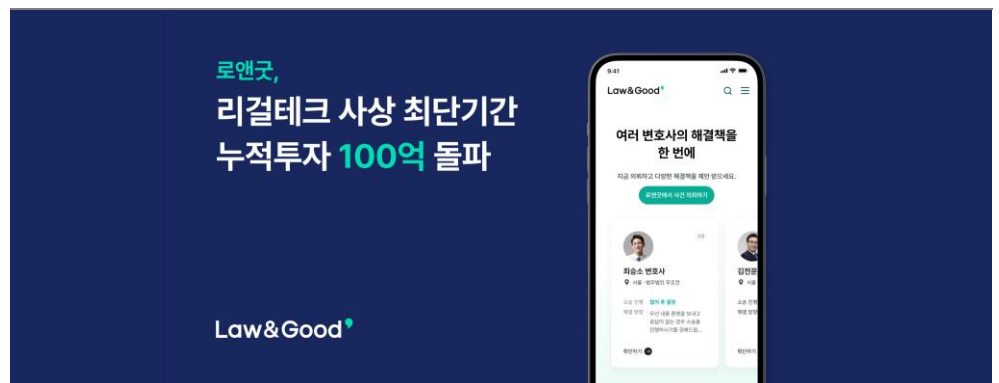
기업 개요

1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

2005년 이후 19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

미래에셋벤처투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벤처투자회사이다. 중소기업의 창업 투자 지원 및 초기 단계 우수기업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며,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및 Growth-Capital(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며, 초기 단계를 지난 기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 투자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소벤처투자 관련 정보 제공 및 투자 대행을 통한 위험 분산 기능을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9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립 이래 총 51개의 VC투자조합 및 6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누적 기준으로 약 1조 9603억 원의 재원을 결성하였다. 언론을 통해 소개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비교적 최근에 투자가 집행된 곳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 커머스 플랫폼 빌더 브랜드 등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비교적 최근에 투자가 집행된 곳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



자료: <https://www.venturesquare.net/872135>,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비교적 최근에 투자가 집행된 곳은 커머스 플랫폼 기업 브랜드



자료: <https://blog.brandi.co.kr/>,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그룹사의 지원이 미래에셋벤처투자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주가에 긍정적

1999년 설립 이후

2019년에 상장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드림캐피탈은 1999년 6월 7일,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미래에셋투자자문의 박현주 사장이 대주주로 참여했으며, 다음커뮤니케이션, 스탠다드텔레콤 등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주주로 참가했다. 한국드림캐피탈은 중견 벤처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생명공학 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중견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0년에 사명을 미래에셋벤처투자로 변경한 이후, 2019년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공모가는 희망가격(3,700~4,500원) 상단인 4,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략적 고유계정 투자, 그룹사 시너지 창출, 스몰 펀드 전략(결성 규모는 작지만 GP(General Partner: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주로 벤처캐피탈 회사나 그 회사의 파트너들을 지칭. 투자 결정을 내리고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관리하는 역할 담당)의 출자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긍정적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일반공모 청약에서는 1,02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룹사의 지원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상장 당시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상장 이후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023년 1월에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해 미래에셋캐피탈이 특수관계인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유상증자 전후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주가는 4,000원 초반에서 5,000원 후반까지 상승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에이피알에 약 100억 원 이상
투자해 1,000억 원 이상 회수**

미래에셋벤처투자는 1999년 설립 이래 총 51개의 VC투자조합(VCF) 및 6개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약 1조 9,603억 원(VCF 1조 4,300억 원 / PEF 5,303억 원)의 재원을 결성(누적 기준이며 이중 일부는 투자 회수)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를 달성했다. 연도별 VC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8,324억 원, 8,655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1조 원을 상회하기 시작해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각각 1조 2,745억 원, 1조 6,130억 원, 1조 6,220억 원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결성된 VC투자조합은 미래에셋 데모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51번째 VCF), 미래에셋-플러스 핀테크 혁신 투자조합(50번째 VCF), 미래에셋 글로벌 유니콘 벤처투자조합 5호(49번째 VCF) 등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바이오,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제조,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유통소비재 등 산업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여러 업종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005년 이후 지난 2023년까지 19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결성 규모는 작지만 GP(General Partner: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이며 주로 벤처캐피탈 회사나 그 회사의 파트너들을 지칭. 투자 결정을 내리고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관리하는 역할 담당)의 출자비중을 높이는 스몰펀드(Small Fund)전략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을 커버하고 빠른 투자 회전율을 확보하고, 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조합의 운용과 함께 고유계정 투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투자회수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견조한 수익모델 구축을 통한 선순환적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최근에 크게 부각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와 뷰티 브랜드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탄탄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23년 매출 5,238억 원, 영업이익 1,042억 원, 당기순이익 815억 원을 기록해 기업공개 시장에서 대어로 주목받았고, 2024년 2월에는 공모가 25만원으로 상장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에이피알에 약 100

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고유계정 투자 비중이 높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매출액)에 유의미하게 기여

**지속적인 고유계정 투자 성공은
회사의 우수한 투자 안목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영업수익(매출액)은 크게 ① 고유계정 관련 수익(처분이익과 평가이익), ② 투자조합 관련 수익(관리보수와 성과보수), ③ 기타수익(이자수익, 외환거래이익,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 고유계정 처분이익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종목의 당기 처분에 따른 이익이며, 고유계정 평가이익은 당기 기말 기준 평가액(상장종목의 경우 시가, 비상장종목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에 따른 평가이익이다. 최근 4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2020년 521억 원, 2021년 989억 원, 2022년 710억 원, 2023년 517억 원) 중에서 고유계정 처분이익은 각각 77억 원, 167억 원, 31억 원, 17억 원을 기록했고, 고유계정 평가이익은 각각 274억 원, 586억 원, 462억 원, 211억 원을 기록했다.

벤처캐피탈 기업의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고유계정 처분이익과 고유계정 평가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고유계정 평가이익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매출액)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계정 투자의 성공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지속적인 고유계정 투자 성공은 회사의 우수한 투자 안목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하며, 이는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회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신뢰는 향후 새로운 펀드 결성이나 자금 조달 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더불어, 성공적인 투자 실적은 유망한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타트업은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 성공 경험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벤처캐피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미래에셋벤처투자 영업수익(매출액) 추이(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 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분	제22기	제23기	제24기	제25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유계정		처분이익	7,762	16,762	3,135	1,776
		평가이익	27,407	58,670	46,279	21,125
		고유계정 소계	35,169	75,432	49,414	22,901
VC부문	조합관련	관리보수	7,312	8,483	11,781	13,001
		성과보수	3,165	5,559	2,563	6,434
		조합관련 소계	10,477	14,042	14,344	19,435
VC부문 합산			45,646	89,474	63,758	42,336
PE부문	펀드관련수익	관리보수	1,062	1,291	2,119	2,042
		성과보수	1,786	-	-	-
		PE부문 합산	2,848	1,291	2,119	2,042
기타		이자수익	123	78	117	617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관련이익	1,235	1,080	1,325	635
		기타의 영업수익	2,258	6,985	3,743	6,108
		기타부문 합산	3,616	8,143	5,185	7,360
합계(VC+PE+기타)			52,110	98,908	71,062	5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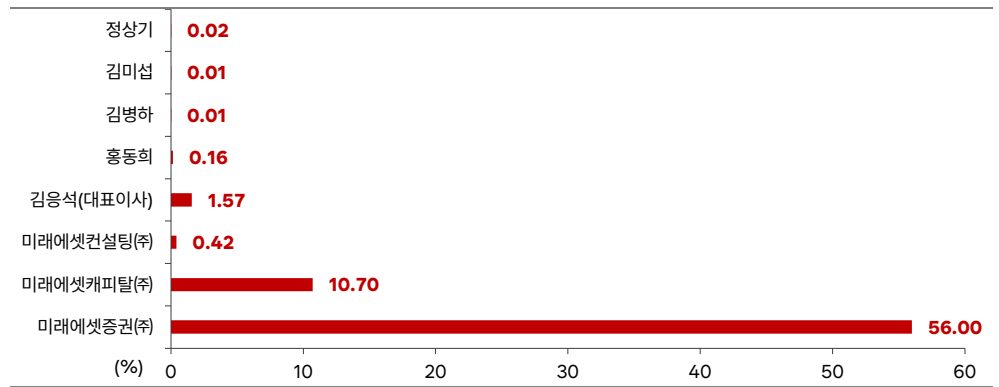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
56.00%의 지분을 보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이다. 2024년 3월 31일 기준 56.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주요 지배주주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10.70%, 미래에셋컨설팅이 0.4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68.89%에 달한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액 20조 3,595억 원, 영업이익 5,210억 원, 당기순이익 3,379억 원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로, 30.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미래에셋그룹 내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룹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의 실적은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능력과 그룹 전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구성



자료: 전자공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벤처캐피탈 업종의 대외환경 변수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리 방향성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추구

벤처캐피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외부환경 요인은 금리다. 금리는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과 투자 동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셋벤처투자나 LB인베스트먼트와 같은 한국의 벤처캐피탈 기업들이 2021년에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운 영업수익(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에 2021년 대비 낮아진 수준의 영업수익(매출액)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금리 방향성(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다.

첫째, 금리는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를 반영한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는 벤처캐피탈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반면, 고금리 환경에서는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여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하고 자금 유입이 둔화된다.

둘째, 금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비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든 벤처캐피탈이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 여력 또는 사업 확장 여력이 증가한다. 이는 더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셋째, 금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시기와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IPO나 M&A를 통한 투자 회수가 용이해진다. 그러나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가 하락하고 투자 회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넷째, 금리 변동은 스타트업의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 환경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반면, 고금리 환경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금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벤처캐피탈 실적에 영향을 준다. 저금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를 증가시켜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을 개선한다. 반면, 고금리 정책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스타트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변화(인상 결정)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이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초저금리 정책을 끝내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금리 인상 사이클은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의 역동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저금리 시대에 활황을 누렸던 벤처 투자는 금리 상승과 함께 보다 신중한 접근으로 바뀌었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벤처캐피탈은 투자 결정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고,

특히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22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국, 일본, 한국 벤처캐피탈 산업 성장 지속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투자자 위험도 측면에서 벤처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

이러한 금리의 영향력은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에 따라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인 일본, 그리고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각기 독특한 특징과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국가의 벤처캐피탈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적어도, 2022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투자자 위험도 측면에서 벤처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IPO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높은 기업가치로 상장에 성공했고, 이는 다시 벤처캐피탈의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 형성

글로벌 저금리 환경은 미국 벤처캐피탈 업종의 성장에 특히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벤처캐피탈 시장을 보유한 미국은 저금리 기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정책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이는 벤처캐피탈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벤처 투자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 시기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대형 펀드의 조성이 용이해졌고, 스타트업은 시리즈 A, B, C 등 다양한 단계에서 풍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더 긴 기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벤처캐피탈의 위험 감수 성향도 높였다. 투자자들은 더 과감하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버, 에어비앤비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저금리 환경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IPO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많은 스타트업이 높은 기업가치로 상장에 성공했고, 이는 다시 벤처캐피탈의 수익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저금리 환경이 만들어낸 벤처캐피탈의 선순환 구조는 AI 기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OpenAI의 전직 직원들이 설립한 Anthropic과 같은 혁신적인 AI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의 모회사인 Alphabet이 Anthropic에 투자한 것을 들 수 있다. Alphabet은 Anthropic에 3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AI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hropic의 주력 AI 모델인 Claude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 텍스트 생성, 분석, 코딩 지원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AI 어시스턴트다. Claude는 OpenAI의 ChatGPT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더 강력한 분석 능력과 더 긴 컨텍스트 처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긴 컨텍스트 처리 능력이란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를 의미한다. Claude는 최대 100,000단어 이상의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긴 문서나 복잡한 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응답할 수 있다. 이는 법률 문서 분석, 학술 논문 요약, 장편 소설 분석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Anthropic은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중점을 둔 헌법적 AI(Constitutional AI)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Claude가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편향되지 않은 응답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저금리 환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도 OpenAI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AI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AI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성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가능케 했고, 이는 Anthropic과 같은 AI 스타트업의 급속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 흐름은 미국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과 달리, 일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저금리 환경은 일본의 벤처캐피탈 산업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극단적인 저금리 환경은 일본의 벤처캐피탈 산업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초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찾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벤처캐피탈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일본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성장을 보였다:

[1] 기관투자자의 참여 증가: 연금펀드, 보험회사 등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를 확대했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국채 등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들 기관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야 했다. 이로 인해 GPIF(일본 공적연금)와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벤처캐피탈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 정부 주도의 지원: 일본 정부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J-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글로벌 진출, 인재 유치,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8'을 통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 시장을 스타트업에 개방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3] 대기업의 CVC 활성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자, 많은 일본 대기업들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여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도요타, 소프트뱅크, NTT 등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CVC 펀드를 조성하여 AI, 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러한 CVC의 활성화는 일본 벤처캐피탈 시장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자금과 더불어 대기업의 네트워크, 기술, 시장 접근성 등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했다.

[4] 글로벌 투자 확대: 국내 투자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일본의 벤처캐피탈은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의 유망 테크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JAFCO, GREE Ventures 등 기존의 일본 벤처캐피탈도 동남아

시아, 인도 등 신흥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 확대는 일본 벤처캐피탈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했다.

[5] 딥테크 분야 집중: 일본의 강점인 로봇틱스,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단기적인 수익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벤처캐피탈은 더 긴 투자 기간과 더 높은 기술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CYBERDYNE(로봇 슈트), Spiber(인공 거미줄 소재) 등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일본의 제조업 강점을 살리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6] 유니콘 기업의 등장: 메르카리(Mercari), 프리퍼드 네트워크(Preferred Networks) 등 일본 최초의 유니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메르카리는 2013년 설립된 C2C(소비자 간 거래)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일본 내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안전한 거래 시스템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기존의 강자였던 야후 옥션을 대체했고, 2018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메르카리의 성공은 일본의 디지털 전환과 공유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프리퍼드 네트워크는 2014년 설립된 AI 기술 기업으로, 딥러닝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목받았다. Toyota, Fanuc 등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일본의 AI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는 2024년 상반기에 언론보도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AI 스타트업으로부터 2나노(nm) 반도체 위탁 계약을 따냈는데, AI 스타트업이 바로 프리퍼드 네트워크(PFN)라고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메르카리와 프리퍼드 네트워크의 성공 사례는 일본의 벤처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메르카리의 경우, 일본 최초의 소비자 서비스 분야 유니콘으로서 젊은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프리퍼드 네트워크는 일본의 제조업 강점과 첨단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보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리스크에 대한 문화적 태도, 경직된 노동시장, 글로벌 인재 유치의 어려움 등이 계속해서 도전 과제로 남아있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본의 벤처캐피탈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시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극단적인 통화정책이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적 특성을 보이며 독자적인 성장 경로를 걸어왔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벤처 붐을 경험한 이후,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로 침체를 겪었지만, 2010년대 들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GDP(2022년 기준 25.46조 달러) 대비 벤처캐피탈 시장 규모(약 2,380억 달러)가 약 0.93%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이보다 낮은 약 0.36% 수준(2022년 기준 약 7.8조 원 vs. GDP 2,162조 원)에 머물

러 있다. 이는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벤처캐피탈 업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1] 정부 주도의 생태계 조성: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캐피탈 출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일본의 정부 주도 지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특징이다. 다만, 이처럼 정부 주도로 벤처캐피탈 업종이 성장했다는 점은 벤처캐피탈 상장사의 주가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식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며, 벤처캐피탈의 자체적인 투자 역량과 수익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벤처캐피탈 상장사들의 주가가 운용자산 규모(AUM) 대비 크게 할인된 주가에 거래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 ICT 분야 중심의 성장: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ICT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삼성, LG 등 대기업이 제조업 분야를 장악하고 있어 이 영역에서의 벤처 성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카카오, 네이버 등 ICT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의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 그리고 빠른 신기술 수용 문화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 특히 핀테크, 이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이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3] 빠른 회수 선호: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투자 회수 기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국 벤처캐피탈의 규모가 작고, 장기 투자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한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3-5년 내의 투자 회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답테크나 바이오테크 등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 대기업 CVC의 성장: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그룹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오픈 이노베이션(예: 현대자동차그룹의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형태 등으로 벤처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일본의 CVC 활성화 트렌드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VC를 통해 대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자사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대기업의 영향력이 벤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 글로벌 진출 확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한국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벤처캐피탈은 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유니콘 기업의 등장: 쿠팡, 크래프톤, 아놀자, 토스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은 한국 벤처 생태계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한국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벤처투자의 높은 수익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여전히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심층적인 기술 투자가 부족하다. 한국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도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IPO나 M&A 시장의 한계로 인한 투자 회수의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성공적인 Exit를 위한 기회가 제한적이다. 특히 M&A 시장의 활성화가 미흡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옵션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창업 실패 또는 투자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혁신적이지만 위험한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는 벤처캐피탈 심사역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과감한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넷째,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우수 인재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많은 우수 인재들이 리스크가 높은 스타트업 창업이나 벤처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벤처 생태계의 인적 자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CVC 활성화와 M&A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업계 자체적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3]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벤처캐피탈 업황의 점진적 회복 기대

벤처캐피탈 업계는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질 것

이처럼 미국, 일본, 한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각국의 경제 구조와 정책 환경에 따라 독특한 발전 양상을 보여왔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일본은 정부 주도의 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CVC 활성화로 벤처 시장을 육성해왔다. 한국의 경우, ICT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벤처캐피탈 시장은 공통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고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지속되어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예상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벤처캐피탈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금리 정책의 변화는 벤처캐피탈 업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로 전환되면서 벤처캐피탈 업계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고금리 시대에 위축되었던 벤처투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국의 벤처캐피탈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금리 인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벤처캐피탈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벤처캐피탈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탈 펀드의 규모 확대에 이어져, 더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리즈 B, C 등 후기 단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업가치 상승: 저금리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벤처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져, 벤처캐피탈의 투자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테크 기업들의 가치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벤처캐피탈의 포트폴리오 가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3]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금리 인하로 인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과 성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대상 풀을 확대시키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시드머니를 조달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 M&A 및 IPO 시장 활성화: 저금리 환경은 일반적으로 M&A와 IPO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 기회를 확대시켜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전략적 M&A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의 호조로 IPO를 통한 Exit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장기 투자 증가: 금리 인하로 인해 단기 금융상품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가진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딥테크(고도화된 AI 알고리즘,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양자 알고리즘, 양자 암호화, 양자 센서, 합성 생물학, 신약 개발 플랫폼, 차세대 태양전지, 핵융합, 고효율 배터리) 등 장기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에 따라 회복 속도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전의 저금리 시대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고 선별적인 투자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단순한 성장성보다는 실질적인 가치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벤처캐피탈 업황의 회복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낙관론이 아닌,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벤처 생태계로의 진화를 의미할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클린테크(기후변화), 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포인트

1 고유계정 투자를 통한 활발한 이익 창출 능력

고유계정 투자의 성공은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의 시장 내 입지 강화에도 기여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첫 번째 주요 투자포인트는 고유계정 투자를 통한 활발한 이익 창출 능력이다. 동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고유계정 관련 수익, 투자조합 관련 수익, 기타수익으로 구성되며, 고유계정 관련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4년간 실적을 분석하면, 고유계정 평가이익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2020년 274억 원, 2021년 586억 원, 2022년 462억 원, 2023년 211억 원의 고유계정 평가이익을 기록하였다. 고유계정 투자의 성공은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회사(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시장 내 입지 강화에도 기여한다. 성공적인 투자 실적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 역량과 안목을 입증하며, 이는 신규 투자자금 유치 및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 기회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유계정 투자의 성공은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 결정의 기반이 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안정적 수익 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뛰어난 성과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2 그룹사의 강력한 지원

자금 지원 측면이나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긍정적

미래에셋벤처투자의 두 번째 주요 투자포인트는 그룹사의 강력한 지원이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로서의 이점은 자금 조달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자금 여력 측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56.0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액 20조 3,595억 원, 영업이익 5,210억 원, 당기순이익 3,379억 원으로, 이는 미래에셋벤처투자에 대한 강력한 재무적 후원 능력을 시사한다. 미래에셋그룹의 브랜드 파워는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시장 내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미래에셋그룹의 명성은 스타트업들에게 신뢰를 주며, 이는 우수한 투자 기회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네트워크와 평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룹의 광범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큰 자산이 된다. 또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 차원의 지원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안정적 성장과 혁신적 투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가치 제안(attractive value proposition)을 할 수 있게 한다.

3 M사, C사, K사 등 업계 내 위상이 높은 스타트업을 유망 포트폴리오로 보유

포트폴리오 전략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M사, C사, K사는 특히 유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M사는 AI 기반의 애드테크 기업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여러 실패를 겪었으나, 머신러닝 기반 클라우드 DSP(Demand Side Platform)로 변전을 이루었다. 현재 M사는 약 6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및 한국 대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C사는 2009년에 설립된 IT 기업으로, 3D 가상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가상 의상 피팅 등 의상과 연관된 모든 분야를 디지털로 융합시키고 있다. C사의 대표 소프트웨어인

'CLO'는 패션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여 패션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이다. C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CLO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 샘플링 작업, 버추얼 런웨이 등의 3D 구현이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보관, 공유, 검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인 클로셋(CLO-SET)과 디지털 의상을 사고파는 글로벌 디지털 의상 커뮤니티 플랫폼인 클로셋 커넥트(CLO-SET CONNECT)를 운영하고 있다.

K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DRAM 프로브카드 품질인증을 진행 중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K사는 메모리반도체의 양품 여부를 판별하는 EDS(Electrical Die Sorting) 테스트용 프로브카드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내에서 낸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의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DRAM용 프로브카드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 시 메모리 설비투자 국면에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이들 기업은 각각 AI, 패션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3년 실적 리뷰

**영업수익(매출액)은
전년 수준 유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

미래에셋벤처투자의 2023년 영업수익(매출액)은 2,170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의 2,179억 원 대비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다. 2022년부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2023년 벤처 투자 환경이 비우호적이었고, 2023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 총액이 10.9조 원으로 2022년 12.5조 원 대비 12% 감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 모습이 긍정적이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 보면 수수료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관계기업관련이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수익이 각각 37억 원, 1,879억 원, 6억 원, 20억 원, 228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중에서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수익이 2022년 대비 증가하여 영업수익을 전년 수준으로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영업수익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은 320억 원으로 전기(592억 원) 대비 감소하였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익(주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하는 금융자산으로 흔히 말하는 주식과 단기채권이 이에 해당하며 취득원가 또한 금융자산의 원가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손익계정으로 분류)이 98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8억 원(35.22%)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2023년 실적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과 벤처 투자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회사의 다각화된 수익 구조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준다. 특히,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수익의 증가는 회사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덜 민감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손익의 감소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미래에셋벤처투자만의 문제가 아닌 벤처캐피탈 업계 전반의 이슈였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체 영업수익을 유지한 것은 회사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1분기 실적 리뷰

**에이피알 및 코셈의 투자 회사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024년 1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영업수익은 69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023년 1분기 154억 원) 대비 348.9% 증가했다. 이는 주로 포트폴리오사 지분의 평가 및 처분 이익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이 119억 원에서 645억 원으로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영업수익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 이익이 총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77.0%에서 92.8%로 크게 증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2024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에이피알 지분의 일부 처분이다. 미래에셋벤처투자는 2018년부터 에이피알에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왔으며, 10배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또한, 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코셈의 지분 처분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영업수익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영업이익도 15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32억 원) 대비 증가했다. 순이익도 1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미래에셋벤처투자 매출액(영업수익) 및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영업수익)	274,825	217,962	217,046	227,911
YoY(%)	114.57%	-20.69%	-0.42%	5.01%
수수료수익	1,277	2,859	3,739	3,9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266,220	200,177	187,889	197,294
관계기업관련이익	1,277	1,244	634	666
이자수익	287	798	2,017	2,118
기타영업수익	5,761	12,882	22,764	23,904
영업비용	178,449	158,770	185,121	190,992
영업이익	96,375	59,191	31,925	36,919

주: 영업수익 구성항목 중 관계기업관련이익 혹은 이자수익 등 일부 항목의 금액이 여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단위를 억 원이 아니라 백만 원으로 표시
 자료: 미래에셋벤처투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실적 전망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하여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정. 다만 영업이익의 규모는 2020~2022년 호실적 대비 보수적으로 추정

2024년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증가한 2,279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한 추정치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신규 투자(1.9조원)와 펀드 결성(2.4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42% 증가했다. 특히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가 각각 1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베어로보틱스가 8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리벨리온이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시리즈A 단계에서 리드 투자자로 참여했던 스타트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을 감안해 연간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369억 원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 이미 151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벤처캐피탈 업종의 특성상 영업이익의 분기별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연간 기준 400억 원 미만 수준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2023년의 경우, 분기별 영업이익이 32억 원, 241억 원, -8억 원, 54억 원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아울러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369억 원은 2020~2022년의 영업이익과 비교해도 보수적인 전망치이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964억 원, 59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에도 3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래에셋벤처투자의 2024년 실적은 전반적인 시장 회복세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종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Valuation

기업가치 저평가의 원인이 되었던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 기조로 변경되어 긍정적

분기별 호실적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저평가 상황은 조속히
개선될 것

미래에셋벤처투자의 2024년 실적 기준 P/E 밸류에이션은 9.6배로, 코스닥 지수와 비교하든, 코스피 지수와 비교하든,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평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2021년 벤처 투자 열풍 이후 2022년 금리 상승기에 나타난 투자 위축으로 인한 시장의 보수적 시각 전환에 있다. 동종 업계 벤처캐피탈 상장사들의 경우 대부분 커버리지 애널리스트가 부재하고 및 실적 컨센서스도 찾아보기 어려워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벤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저평가 상황은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2024년 1분기에 영업수익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향후 2분기 또는 그 이후에도 분기별 호실적이 지속된다면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황은 조속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금리 정책 변화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실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동종 업종의 실적 컨센서스 및 밸류에이션

(단위: 억 원, 배)

기업명	매출액(영업수익)		영업이익		P/E	
	2023	2024F	2023	2024F	2023	2024F
코스피	35,309,367	28,970,486	1,717,567	2,755,482	176	10.8
코스닥	3,317,332	1,206,021	110,789	109,443	40.8	23.6
미래에셋벤처투자	2,170	2,279	319	369	12.7	9.6
큐캐피탈	360	N/A	105	N/A	9.0	N/A
SBI 인베스트먼트	293	N/A	85	N/A	16.7	N/A
플루토스	70	N/A	-103	N/A	-2.8	N/A
엠벤처투자	254	N/A	177	N/A	4.6	N/A
에이티남인베스트	1,358	N/A	248	N/A	8.6	N/A
스탁인베스트먼트	938	N/A	331	N/A	10.5	N/A
대상창투	124	N/A	21	N/A	41.0	N/A
우리기술투자	1,707	N/A	1,539	N/A	4.4	N/A
TS 인베스트먼트	262	N/A	143	N/A	5.5	N/A
DSC 인베스트먼트	336	N/A	175	N/A	6.0	N/A
린드먼아시아	97	N/A	34	N/A	18.1	N/A
SV 인베스트먼트	297	N/A	63	N/A	26.6	N/A
나우IB	267	N/A	25	N/A	55.5	N/A
아주IB 투자	738	N/A	177	N/A	20.0	N/A
LB 인베스트먼트	276	N/A	85	N/A	16.4	N/A
컴퍼니케이	159	N/A	-50	N/A	-18.2	N/A
스톤브릿지벤처스	190	N/A	64	N/A	18.0	N/A
캡스톤파트너스	95	N/A	-24	N/A	-14.3	N/A
HB 인베스트먼트	205	N/A	106	N/A	N/A	N/A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의 큰 변동성

2023년 3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4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한 사례는 실적의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실적 추정 시 불확실성이 크다. 이는 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의 큰 변동성에서 기인한다. 벤처캐피탈 업종의 특성상,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래에셋벤처투자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익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 변동, 시장 상황, 투자금 회수 시기 등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기업의 상장이나 M&A 성사 여부,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 변동 등이 단기간에 큰 폭의 실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23년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1분기 32억 원, 2분기 241억 원, 3분기 -8억 원, 4분기 54억 원)는 이러한 변동성을 잘 보여준다. 특히 3분기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4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한 사례는 실적의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실적을 예측할 때는 이러한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와 회사의 투자 전략, 그리고 전반적인 벤처 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분기별 혹은 연간 실적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실적 변동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와 포트폴리오의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커 보이는 것은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

부채의 증가는 주로 펀드 운용 규모의 확대와 LP 투자자 모입 후 Capital Call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연결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부채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회계처리 방식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2023년 연말 기준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3.05% 증가한 7,675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존 운용조합의 Capital Call(투자자들에게 약정된 투자금을 요청하는 행위)로 인한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에 있다. 이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GP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지분(LP지분)이 비지배지분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은 벤처캐피탈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비지배지분부채의 존재로 인해 부채규모가 커 보이고, 결과적으로 자산규모도 커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재무지표라 할 수 있는 부채비율이나 ROE 등의 비율의 시사점은 제한적이고, 실적 지표로서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재무 부담을 의미하지 않는 LP들의 투자금액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채 규모만을 보고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채의 증가는 주로 펀드 운용 규모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281	2,748	2,180	2,170
% YoY	39.08%	114.57%	-20.69%	-0.42%
매출총이익	501	1,108	708	448
% 매출총이익률	39.14%	40.32%	32.50%	20.63%
영업이익	389	964	592	319
% 영업이익률	30.39%	35.07%	27.16%	14.71%
% YoY	139.23%	147.59%	-38.58%	-46.07%
EBITDA	396	972	602	329
% EBITDA Margin	30.88%	35.37%	27.61%	15.16%
법인세차감전이익	388	967	594	320
당기순이익	320	803	561	245
% 당기순이익률	24.97%	29.22%	25.74%	11.31%
% YoY	130.78%	151.13%	-30.14%	-56.26%
당기순이익 - 지배주주	320	803	561	245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1,010	-533	157
당기순이익	N/A	803	561	245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가산	N/A	1,740	1,397	1,50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차감	N/A	1,924	2,003	1,741
운전자본변동	N/A	-1,602	-428	146
자산의감소	N/A	-1,627	-414	154
부채의증가	N/A	25	-14	-8
법인세납부(-)	N/A	-38	-66	-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41	-85	-3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N/A	1,113	440	-228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N/A	2,288	939	54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N/A	1,104	462	772
배당금지급(-)	N/A	-71	-3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	N/A	61	-178	-10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N/A	655	716	53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N/A	716	538	432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자산총계	5,198	8,617	10,430	11,099
유동자산	681	745	555	480
당좌자산	N/A	N/A	N/A	N/A
현금등가물 등	655	716	538	432
매출채권	N/A	N/A	N/A	N/A
재고자산	N/A	N/A	N/A	N/A
비유동자산	4,517	7,863	9,870	10,613
투자자산	4,482	7,830	9,844	10,597
유형자산	32	31	24	14
무형자산	2	2	2	2
부채총계	3,435	6,158	7,448	7,675
유동부채	66	120	66	77
매입채무	N/A	N/A	N/A	N/A
유동성차입금	N/A	N/A	N/A	N/A
유동성사채	N/A	N/A	N/A	N/A
비유동부채	3,369	6,037	7,381	7,598
사채	N/A	N/A	N/A	N/A
장기차입금	30	280	312	192
순부채	-625	-436	-226	-240
자본총계	1,764	2,460	2,982	3,424
자본총계(지배)	1,764	2,460	2,982	3,424
자본금	465	467	490	547
자본잉여금	108	120	120	313
이익잉여금	1,167	1,899	2,399	2,644
자본조정	24	-26	-26	-80
자기주식		-45	-45	-99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P/E(배)	8.3	4.9	3.7	12.7
P/B(배)	1.4	1.6	0.7	0.9
P/S(배)	2.0	1.4	1.0	1.4
EV/EBITDA(배)	4.8	3.6	3.1	8.8
배당수익률(%)	2.8	1.0	0.0	0.0
EPS(원)	626	1,657	1,157	457
BPS(원)	3,653	5,127	6,217	6,489
SPS(원)	2,653	5,672	4,496	4,041
DPS(원)	148	127	0	0
수익성(%)				
ROE	18.4%	38.0%	20.6%	7.7%
ROA	6.5%	11.6%	5.9%	2.3%
ROIC	N/A	N/A	N/A	N/A
안정성(%)				
유동비율	1,039.0%	620.0%	836.1%	622.3%
부채비율	194.8%	250.4%	249.7%	224.2%
순차입금비율	-35.4%	-17.7%	-7.6%	-7.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미래에셋벤처투자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